

# 담빛문화지구 축사 악취 어쩌나...담양군 '골머리'

### 주민 등 한 달간 민원 100여건 “담양군, 이전 대책 좀 세워주길” 27개 축사 인접...군 “사유재산이라 이전 법적 근거·예산 부족”

담양군이 조성한 전원주택 단지인 ‘담빛문화지구’에서 축사 악취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주민들이 한 달 100여건에 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군은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축사를 이전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반면, 주민들은 ‘군이 입주전 제시한 축사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9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군 담빛문화지구 주민 등으로부터 하루 평균 3회, 한 달 100여건에 달하는 축사 악취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창문을 여는 집이 많아 민

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민원 당사자들은 담빛문화지구 입주민들이다. 이 공간은 지난 2015년 담양군과 민간 건설사가 특수목적법인 담양대숲마루를 설립해 진행한 127만 7173㎡(38만 6000여평)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지구다. 지난해 11월 기준 아파트 629세대, 단독주택 238세대 등 총 2164명이 살고 있다.

주민들은 “담빛문화지구 인근 축사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다”며 “소를 못키우게 하던가 아니면 인적 드문 외곽쪽으로 옮겨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담빛문화지구와 인접한 담양군 가산리에 있는 27개 축사 농가를 악취의 진원지로 지목하고

있다.

민원인들은 “입주 당시 담양군이 축사 이전 등 계획을 갖추고 있다고 해 의심없이 입주했는데, 3년 넘게 축사가 그대로 남아있다”, “축사 냄새 때문에 외출 시 마다 인상을 쓰게 되고, 주변인에게 놀려오라고 요청하기도 망설여진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도 군은 속수무책이다. 축사 시설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다 악취 배출 기준치가 높아 제재하기 어렵고, 군 차원에서 축사를 이전하기에는 법적 근거와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담양군은 당초 담빛문화지구 개발 과정에서 인근 축사 이전 계획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지나, 실제 추진까지 이어진 사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담양군은 지난 2023년부터 주거지(마을) 근처에 있는 축사를 대상으로 축사이전 지원 사업을 개시했으나, 지난해 2건을 이전하는 데 그쳤다. 확보

한 1년 예산으로는 2건 밖에 지원할 수 없어 추가 신청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지원대상 신청 조건도 까다롭다. 축사 이전 지원금을 받으려면 현재 165㎡(50평) 이상의 축사를 운영 중이어야 하며, 이전 대상지에 최소 330㎡(100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현 축사 인근에 주택이 5채 이상 들어서 있어야 하며 이전 이후에는 기존 축사를 철거 및 용도변경 해야 하는 등 조건이 부과돼 있다.

지원금 또한 평당 36만원씩 최대 1억 4000만원에 그쳐 결국 농장주가 수억원의 축사 신축 비용을 자부담해야 하는 한계도 있다.

군은 악취 배출에 대한 제재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나 역시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악취방지법 등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배출 허용 기준은 ‘희석배수 15’다. 이는 악취에 깨끗한 공기를 15배 이하여야 단계적으로 희석했을 때 냄새가 안 나는 수준이라는 뜻이다. 담양군은 이에

맞춰 주기적으로 공기를 포집해 전담보존환경연구원에 보내 점검을 하고 있으나 최근 1년여간 기준치를 넘긴 곳은 단 1곳밖에 없었다.

악취배출 기준을 1년 동안 3회 이상 넘어서면 해당 사업장을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하고 악취포집 기준을 희석배수 10으로 낮춰 강화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나, 애초 최초 기준치인 희석배수 15를 초과하기 어렵다는 것이 담양군 설명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모두 정식으로 군의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축사인데다 사유재산이라 군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이전하거나 무작정 제재할 수는 없다. 사업 추진이 오래전이라 담빛문화지구 개발 당시 축사 이전 계획이 존재했는지 확인은 불가능하다”면서 “대신 담양군 일대에 스마트축사 ICT 시범 단지를 설립하는 등 다른 사업을 통해 축사 이전을 활성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삼시세끼 그 섬...신안 만재도 주상절리 천연기념물 된다

### 해안 절벽 백악기 화산 암석 장관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에 소개되며 큰 관심을 받았던 신안 만재도의 주상절리(사진)가 천연기념물이 된다.

문화재청은 만재도의 해안 경관을 이루는 주상절리(정식 명칭 ‘신안 만재도 주상절리’)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9일 예고했다.

주상절리는 화산 활동 중 지하에 남아있는 마그마가 식는 과정에서 수축하고 갈라져 만들어진 화산암 기둥이 무리 지어 있는 것을 뜻한다.

현재 광주 무등산 주상절리대, 포항 오도리 주상절리 등 5곳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만재도 주상절리는 해안 절벽을 따라 이어진 기둥이 아름다운 풍광을 이루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만재도는 섬 전체가 중생대 백악기 시기에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암석으로 이뤄져 있다.

이곳의 주상절리는 응회암(凝灰岩)화산이 분출할 때 나온 화산재 따위의 물질이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이 퇴적될 당시 온도를 알려주는 열결 조적이 고르게 관찰돼 연구 가치가 크다.



또, 오랜 시간 파도와 바람에 깎여 만들어진 해안 침식 지형과도 조화를 이룬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읍·면 지역 ‘찾아가는 진로진학상담’ 운영

### 전남교육청, 내달부터

전남교육청이 읍·면 단위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로진학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진로진학상담센터와 교육지원청이 연계하는 ‘찾아가는 진로진학상담’을 내달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찾아가는 진로진학상담’은 목포·순천·나주·여

수·광양 등 거점형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찾기 어려운 읍·면 단위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찾아가는 진로진학상담’을 희망하는 교육지원청에서는 주기적 상담 신청을 받아 거점형 센터의 상담 인력 지원을 통해 1대1 대면 상담을 진행한다. 도 교육청 진로진학상담센터는 상담을 통해 ▲

학생의 진로 고민에 적합한 대학·모집 단위 등 진학 상담 ▲수시·정시 모집 특징 및 입시 결과 분석 및 지원전략 안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 프로그램 및 드림플러스 등을 활용한 진로진학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은섭 전남도교육청 진로교육과장은 “읍·면 단위 학생들에게 변화하는 대입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상담을 통해 전남 학생들의 대입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 광주서 ‘세월호 10주기’ 추모 행사 잇따라

### 시민분향소·청소년 기억문화제...노래·그림 있는 ‘예술인행동장’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광주·전남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린다.

9일 세월호참사10주기광주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 광주시민분향소가 설치된다. 시민분향소는 12일부터 16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추모객들을 맞는다.

광주시 남구도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추모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를 되돌아보기 위해 12일부터 16일까지 구정 1층에 분향소를 마련한다.

15일 오후 4시 30분부터는 광주시 남구 주월동 푸른길 광장에 주민들이 모여 ‘세월호 10주기 기억문화제’를 개최한다. 청소년과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추모 공연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13일에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5·18민주광장에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안전한 대한

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광주 청소년 기억문화제’가 열린다.

봉선청소년문화의집 등이 주최하는 청소년 기억문화제에는 ‘세월호 72시간의 기록, 304명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등 관련 전시가 마련된다. 또 세월호 기억 촛불과 안전 팔찌 등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과 응급 처치 교육, 생활안전퀴즈도 진행된다.

예술인들도 추모 행렬에 동참한다.

광주지역 예술인 단체는 참사 10주기인 16일 당일 오후 2시부터 5·18민주광장에서 ‘예술인행동장’을 열어 노래와 그림으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한다.

20일 오후 3시에는 광주시 동구 독립영화관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 ‘세 가지 안부’ 상영회가 열린다. ‘세 가지 안부’는 ‘그레이존’, ‘흔적’, ‘드라이브97’로 구성된 윤니버스 다큐멘터리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학령인구 감소에 교대 졸업생 절반 임용 탈락

### 광주교대 등 11곳

광주교육대학교 졸업생 절반이 임용고시에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를 통해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 등 11개 대학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저 2024학년도 전국 10개 교대 및 교원대학교를 졸업한 학생 수는 3463명이었는데 이 중 임용 합격생은 1792명으로 51.7%에 불과했다.

광주교대는 졸업생 314명 가운데 157명이 임용고시를 통과해 합격률은 50%였다.

학교별로 보면 10개 교대의 합격률은 서울교대가 62.01%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교대 57.10%, 전주교대 53.9%, 진주교대 52.82%, 부산교대 52.58% 순이었다.

경인교대·청주교대·춘천교대의 경우 합격률이 절반도 되지 않았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신규 초등교사 채용이 줄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강 의원은 분석했다.

2년 전만 해도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제외한 전국 12개 교대의 평균 임용률은 2020년 기준 62.1%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연합뉴스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   |   |
|---|---|
| <br><b>갈라강관 지붕공사</b> | <br><b>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b>        |
| <br><b>옥상스틸방수</b>    | <br><b>전원주택신축</b> <b>공장신축</b>     |
| <br><b>건물 리모델링</b>   | <br><b>징크판넬시공</b> <b>창호(샷시)교체</b> |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향2길3(서향동)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